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음 11월 1일) 제195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미래먹거리산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도,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전북 연구개발특구 조기 안착
금융타운 개발 수립용역 추진

전북도는 탄소산업 국가차원 미래 먹거리로 본격 도약, 연구개발특구 성공적 안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했다. 지난 15일 밝혔다.

먼저 군산조선소 일시 가동중단, 한국 GM 철수설, 넥슨론 파산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탄소산업의 국가 주도 추진체계를 마련, 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 안착 등 미래 먹거리산업을 본격 추진했다.

탄소산업 육성 컨트롤타워인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도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만큼 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육성이 가능한 국가기관 설립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203억), 항공기 탄소복합재 중대수리기술 및 인증기술 개발(350억),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역대 최대 규모(36개 사업, 848억원)로 반영됐다.

또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조기 안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역산업육성 민관공동협의체 T/F팀을 구성,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등 성장동력 산업 및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 기업 CEO 등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4차 산업혁명, 미래 신산업을 다양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과학행사 개최와 투어패스를 활용한 관람객 유치 전략을 통해 관람객 증대, 지역민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는다.

금융산업으로는 지난 1월에 금융타운 조성 기본구상계획을 마련,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정책이 새 정부 지역 대선공약으로 반영,

현재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IT, SW 기업 및 농민, 도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형 서비스 확산을 위한 SW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융복합 SW맞춤형 기업과 드론 관련 사업과 지원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농생명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기업의 해외 시장 다변화,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하여 전북 수출이 반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자치분권 로드맵 호남권 현장토론회 15일 오전 10시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자치분권 로드맵(안) 호남권 현장토론회'에 송하진 도지사, 채홍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을 비롯한 이범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 안국환 전북대 교수, 김병도 한국가버너스학회 이사, 조진상 전라남도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 백종인 전북대학교 교수, 이민원 광주대학교 교수, 이현민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양기생 무등일보 팀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복면산타, 어려운 아이들의 희망 전도사 | 도·전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004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전북지역 1004명의 생활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푸짐한 크리스마스 선물 잔치와 함께 진심어린 따뜻한 격려가 쏟아졌다.

전북도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소동하)가 마련한 '2017년 산타원정대 복면산타가간다!' 행사가 16일 오전 11시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북지역 일반 후원자 및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일반 후원자들이 산타가 되어 본부와 전북후원회(회장 서거석)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아이들로부터 큰 기대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공동 대표산타인 송하진 도지사서 거석 전북후원회장이 직접 참석해 어린이들과 시간을 함께하면서 따뜻한 격려를 더했다.

서거석 전북후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에는 저소득층 가정과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수급아동이 약 3만여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원을 받는 아동만 2,500여명 정도"라며 "가슴 따뜻한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연말이면 특히 따뜻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사회 미래 희망인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각계각층 소외계층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격 조건
신입기자(취재, 정규직)	본사 0명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정부 가상통화대책 자료 관세청 사무관이 카톡 유출

정부, "소관 부처 추가조사 등 거쳐 징계 추진할 것"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대책회의의 보도자료' 초안이 관세청 사무관에 의해 카카오톡으로 최초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한시간 30분가량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가상통화 범부처 대책안이 담긴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오후 2시36분 이메일로 발송했다.

그러나 이미 정오쯤 가상통화 커뮤니티에 정부 보도자료 문건이 찍힌 사진이 올라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산돼 사전 유출 파문이 일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유출 경위에 대해 당일 부터 조사가 착수했다. 유출된 보도 자료는 언론 배포용 최종본이 아닌 중간단계의 자료로 파악됐다.

정부는 "유출된 자료는 차관회의 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차관회의의 안전과 함께 지난 13일 오전 10시 회의장에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이라며 "유출된 보도자료안이 만들어지 시점이 오전 9시37분이고 인터넷 최초 유출시점이 오전 11시57분이어서 그 사이가 유출된 시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관세청 A사무관이 해당 자료를 오전 10시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방에 최초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성원 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B사무관은 오전 10시20분 자신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이를 게재했다.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관세조사요원인 C사무관은 이를 오전 10시30분 자신이 알고 지내는 기자와 기업인들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방에 다시 올리면서 보도자료는 추가 확산됐다.

정부는 "유출 경로는 점검단이 당사 진술과 본인 동의 하 이메일과 휴대폰 검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한 것"이라며 "조사결과 드러난 자료관리 소홀과 단체 카카오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소관 부처로 하여금 추가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역동하는 김제 시계로, 미래로!

2017 Dynamic GIMJE!

힘차고 활발하게 역동하는 도시 김제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김제시